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 경배 찬양

## 모든 상황 속에서

## 선교

## [윤지상 선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X2)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 인도네시아

1. 우리 가정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2.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3. 둘째 아이 자폐성 발달장애가 치료될 수 있도록

## 2023 오렌지 투어



# 우.목.소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 목장 사진 컨테스트 안내

1.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상의하여, 재미 / 의미 / 감동 / 참신함 등등이 담긴 사진을 찍을 계획을 합니다.
2. 계획에 따라 사진을 찍고, 간단한 목장 소개와 사진의 의도, 의미 등을 준비합니다. 사진 제출은 매 주 목요일 낮 12에 마감합니다. 5월 첫주는 우.목소. 회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첫번째 사진 마감은 5월 11일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3. 목자는 준비된 사진과 내용들을, 마을장에게 전달하고, 마을장은 김성연 목사와 각 지역장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김성연 목사: 010-2527-5063)  
ex) 더은혜지역 10-5 목장 사진과 내용을 목자이신 최혁종 집사님이 마을장이신 조성봉 집사님께 전달해주시고, 조성봉 집사님께서 김성연 목사와 지역장이신 김종설 장로에게 함께 전달해주세요.
4. 전달된 사진과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성도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에 규알코드로 안내됩니다.
5.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목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외식 상품권은 지정된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
6. 5월 한 달간 매 주 진행이 되며, 첫번째 시상은 5월 14일 주일이고, 마지막 시상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민수기 28장 2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화제가 필요하다.  
가슴의 화제, 정신의 화제, 그리고 지갑의 화제이다.’

- 마틴 루터 (1483~1546, 독일의 종교개혁자) -

돈은 예나 지금이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점점 개인화가 심해져가는 세대 속에,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할 무언가를 끊임 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 물질’을, 앞날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에서, 예배(제사)는 개인과 공동체에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매년 수소 113마리, 숫양32마리, 새끼양 1086마리, 숫염소 22마리, 밀가루 1톤 이상, 1000명 이상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까요?

### 1\_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정한 시기’에 ‘삼가 드리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삼가라’는 명령은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뵈는 것이 최고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매일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에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상번제 =>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 => 7일째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  
절 기 =>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등의 절기

[질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한 때가 있나요?  
정한 때를 갖기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2\_어김 없이, 아낌 없이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 2)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정하신 것으로
-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자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배는 잠깐 구경하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내 시간, 나의 것, 내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 vs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차이점을 하나씩 적어보고 나누어 봅니다.

### 3\_최우선 순위, 예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위함입니다. 특히, 그 관계의 가장 솔직하고 풍성한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속 가장 높고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가장 의미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질문] ‘예배는 나에게 정말 기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 이 문장은 나에게 얼마나 외닿는 고백인가요?

[나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다시금 회복해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요?

[도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목장 모임을 귀히 여기며,  
‘우.목.소’에 함께 참여해 봅니다.